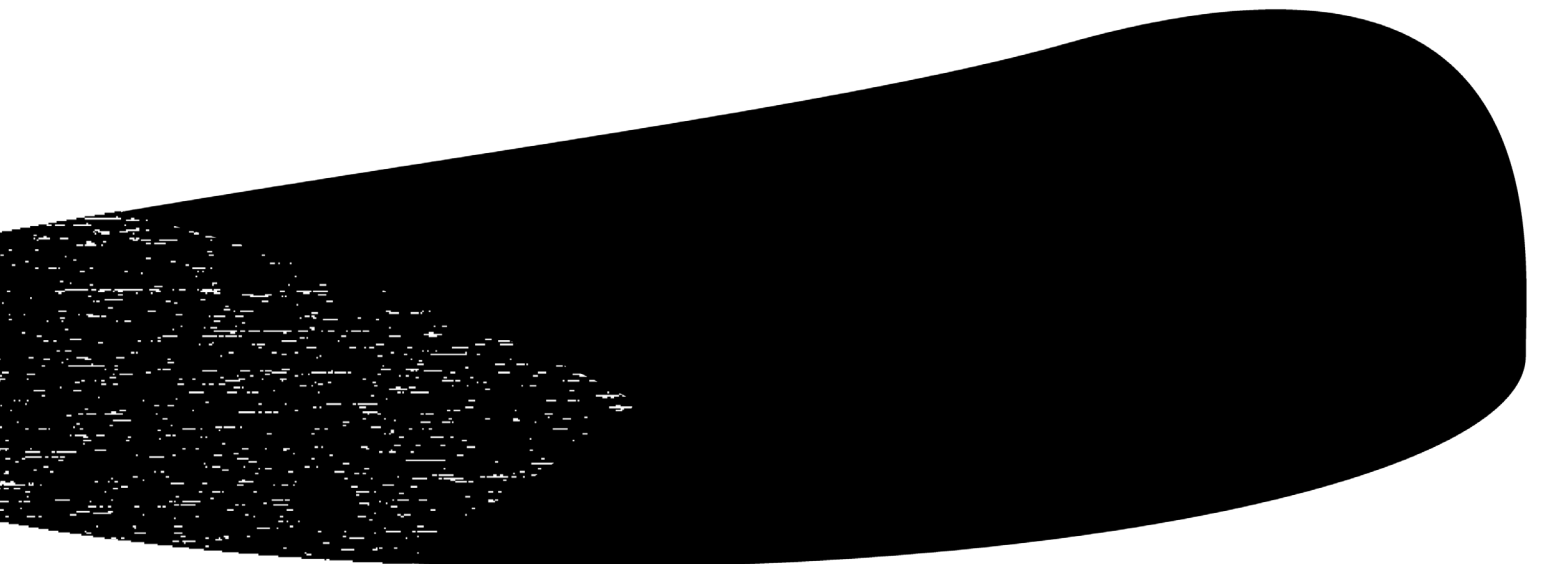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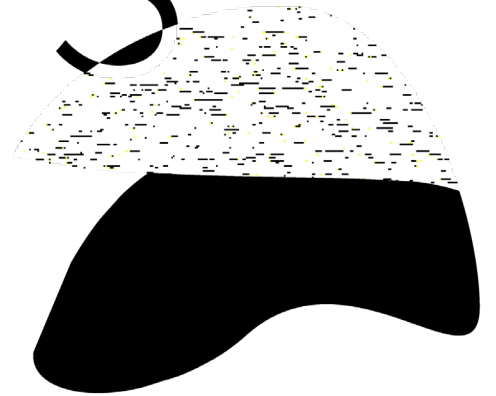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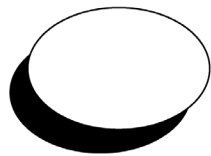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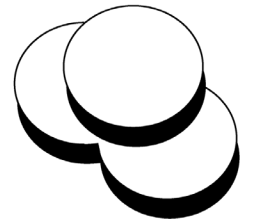


OO
HOW TO

BETTER

YOUR

SELVES



< HOW TO

BETTER

2019년 12월 23일, 학교 작업실 공사로 인해 갈 곳을 잃은 작업 물품은 작가의 거주지로 들어오게 된다. 본 기획은 이를 작가 개인의 상황을 넘어 작가 전반이 마주하는 문제로 인식하고 상황을 공유하는 작가 3인에게 작업 물품이 쌓여있는 거주지 내에서 전시를 해나갈 것을 요청한다. 이들은 5평 남짓한 원룸 내에 작업 물품, 생활 물품, 가구 등이 쌓여 있는 공간을 마주하고 이 속에서 작품을 배치 및 변형시키며 각자의 방식대로 공간과의 관계를 형성해나간다. 이들의 작품은 보관과 전시의 성격을 동시에 의식해야 하며 다른 작가의 작품과 협동, 교류 혹은 방해하며 존재하게 된다. 이들은 주어진 환경 내에서 물리적인 한계를 수용하고 그렇기에 닿을 수 있는 상태를 취한다. 한정된 공간과 작업물이 맞물리며 만들어진 전시 전경은 작가가 처한 상황을 드러내고 동시에 전시, 보관, 작업 이 세 가지 영역을 해결해야 하는 상황을 드러낸다. 방 안에 가득 찬 사물과 작품은 어떤 관계를 맺을지 그리고 이 속에서 작가의 작업은 대중에게 무엇으로 보일지 바라본다. 더 나아가 이 전시는 이들에게 주어진 상황이 어떤 한계와 미래를 엿보게 하는지 질문한다.

본 기획전 <HOW TO BETTER YOURSELVES>는 작가 전반이 겪는 공간 부족과 기관 의존적인 상황을 드러내고 이러한 상황이 전시로 다뤄질 때 전시가 상황을 다루는 방식에 대해 질문한다. 전시가 가지는 제도적 성격과 시각 영역에 대한 평가는 상황을 드러내는 것을 넘어 작가 군을 분류하고 구분 짓는 영역으로 작동한다. 본 기획은 작가의 상황을 전시로 환원하는 방식이 작가 개인을 넘어 작가 군에게 어떤 영역으로 작동할 수 있는지 질문한다. 이는 전시 안에서 작가의 영역을 되짚고 이 영역의 한계와 미래를 공유하는 작가들과 함께 이를 확장 혹은 변주시키고자 한다.

좁은 방 안에 설치된 이들의 작업이 전시 공간을 넘어 제도 안에서 어떤 지표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 기대하는 바이다.

기획 오어진

작가 소개

배민진

작가는 카페트, 조명과 같이 영역을 지정하는 사물을 이용하여 속성이 모호한 공간의 경계를 드러낸다. 작가의 작업 <반짝>은 전시, 보관, 거주의 속성을 지닌 공간 곳곳에 다양한 형식으로 배치되고 관객과 조우하며 각 개별 작업의 방식대로 공간을 지칭한다.

작업 <반짝>은 이전 작업을 공간에 맞춰 변형시킨 결과물이다. 넓은 전시 공간에 펼쳐졌던 카페트는 좁은 원룸으로 들어오면서 어딘가에 부착되고, 접히고, 펼쳐지는 등 형태의 변형을 거치고, 벽에 고정되어 관객을 비추던 조명은 다른 작가의 작업을 비추거나 바닥에 꺼진 채 놓이는 등 기능의 변화를 거친다. 작가는 공간이 가지는 거주, 보관, 전시의 속성을 작가의 개별 작업마다 다르게 인식하게 하고 이를 공간 내부에 산재해놓았다. 이는 전시 상황에 대한 작가의 입장을 은유하고 각자의 자리에서 <반짝>거리는 조각들을 통해 전시 공간이 가지는 혼재된 성격을 적극 드러낸다.

임다울

<접힌 일렁>은 작가의 이전 작업 <일렁>이 전시 공간으로 들어오면서 변형된 작업이다. <접힌 일렁>은 작업의 구성요소인 “나무”에 대한 정보의 나열로 작동한다. 영상과 조각으로 구성된 작업은 특정 대상에 대한 시각적인 정보들을 동일한 층위로 나열하고 이를 바라보는 관객에게 대상을 어떻게 대하고 판단할 것인지 질문한다. 이는 동일한 층위에서 존재하는 요소들 가운데서 관객 스스로 무엇을 후퇴시키고 인식하는지 질문하며 이 과정을 통해 결국 인식되는 대상은 무엇인지 질문한다.

이처럼 작가는 공간 내에 있는 관객의 시선, 구성요소, 다른 작업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며 작업의 형태를 변형시킨다. <접힌 일렁>은 방안의 창틀을, <portrait>은 배민진 작가의 <반짝>을 바라보며 변주된다. 공간을 응시하는 작가의 작업은 해당 공간의 일부를 작업 구성 요소로 끌어와 공간과 작업 간의 긴밀한 관계를 형성한다.

YOUR SELVES >

Coknow

“전혀 상관없는 것들이 모여 그 생물을 이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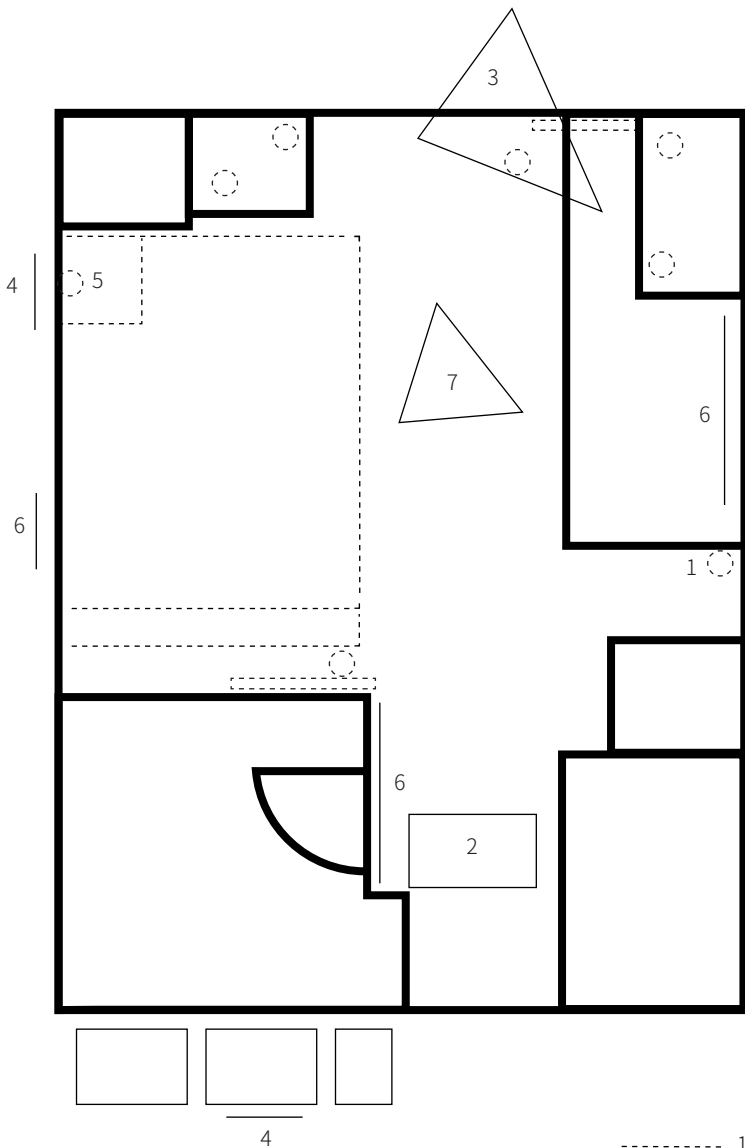
작가는 실제 마주하기 힘든 대상을 바라볼 때 씩씩지는 관념을 포착하고 대상에 대한 이미지를 회화를 통해 은유한다. 작가의 작업은 대상이 제거된 추상 회화의 상태로 공간 내에 배치되는데, 이는 단일 회화 내부 이미지를 넘어 전체 공간 안에서 대상을 암시하는 분위기를 형성한다.

작가는 전시 기간 동안 연작을 계속 진행하여 증식시킨다. 외부에서 생성되어 전시장 내부로 들어오는 회화는 작업 공간을 잃은 채 작업을 진행해나가야 하는 작가의 상황을 배경으로 한다.

임다울xCoknow

<머나먼 일렁>은 임다울 작가와 Coknow 작가의 협업이다. Coknow 작가의 회화는 홍콩 광장의 원경 모습을 그린다. 이 때 작가는 거리로 쏟아져 나오는 홍콩 시민들을 회화 속 대상으로 설정하고 이를 자수와 스팅글을 통해 추상적으로 표현하였다. 이를 통해 대상은 작가가 표현하는 단순 이미지와 정치적 사건에 놓인 위기의 존재 사이를 오간다.

이에 임다울의 <일렁>은 그림을 감싸는 틀로써 작동한다. 이 틀은 Coknow 작가의 회화를 하나의 프레임 내에서 보여주고 동시에 무늬유리를 사용하여 한 번 더 추상화 시킨다. 관객은 뚜렷한 작가의 그림을 보기 위해 <일렁>을 빙 돌아가야 하며 <일렁>의 뒤에 선 관객은 무늬유리를 통해 추상화된 전시장 풍경을 바라보게 된다.



배민진

- 1 배민진, 반짝, 카페트와 전등, 가변설치, 2020
- 2 배민진, 카페트, 카페트, 57 x 37 cm, 2020

임다울

- 3 임다울, 접힌 일렁, 복합 매체, 가변설치, 2020
- 4 임다울, Portrait, 종이 위에 프린트, 21 x 29.7cm, 2020
- 5 임다울, “모든 것들에 대한 모든 정의에 대한 모든 의미에 대한 설명, 인쇄 매체, 26.3 x 37cm, 2017

Coknow

- 6 Coknow, 2019/12/19~, 캔버스에 유채, 스팅글, 자수실, 펜, 가변크기, 2020

임다울xCoknow

- 7 임다울xCoknow, 머나먼 일렁, 복합 매체, 70 x 80 x90 cm, 2020

전시기간

2020.01.23 - 03.06

전시 장소

화랑로 32길 161, 402호

기획

오어진

참여작가

배민진
임다울
Coknow

디자인

김희경

전시 기록

오세아

도움주신 분

리오

관람시간

12pm-7pm
(매주 월 휴관, 1월 24-25일 휴관)

주의사항

- 전시 공간이 거주지역이니 큰 소음이 발생하지 않도록 양해부탁드립니다.
- 화장실은 전시 건물 옆 카페 (라운지 32) 화장실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카페 측과 협의된 내용입니다.)

